교양국어 교육 변천과정 연구*

- 대학 교육 이전 시기부터 대학 교양국어 체계화까지 -

조미숙**

〈차 례〉

1. 서론 : 교양국어 교육과 대학
2. 교양국어 체계화 이전기 : 국어 교육 형성 과정
3. 교양국어 체계화의 과정-대학 교양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4. 결론 : 끊임없는 모색 대상으로서의 교양국어 교육

【국문초록】

본고는 교양국어 교재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대학 교양국어 교육 변천과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양국어 교재 발생 이전기에 관한 대략적 고찰을 거쳐 교재 중심으로 대학 교양국어 변천사를 살펴본다.

대학 교양국어가 체계화되기 이전의 역사를 살펴본 것은 개인의 역량으로만 치부하며 공적인 교육의 흔적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역량으로 미뤄 두었던 체계화 이전기, 1950년대 초까지를 '대학 교양국어 이전기'로 보았다. 체계화 단계는 정리하자면 교양필수 과목으로서의 교양국어가 교양선택을 거쳐 새로운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2014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교양교육원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곧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 작문 교재 개발 시기까지의 '대학 교양국어 전문교재 형성기'를 거쳐 1970년대 초 본격 작문교재 독립기부터 대학국어와 작문 공존기, 1990년대 중반까지에 이르기까지인 '대학 교양국어 발전기', 1990년대 이후의 '대학 교양국어 반성기, 방향전환기'가 그것이다.

대학 교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그 방향성 고려가 중요하다. 우리 대학의 교재는 과거 주입식 읽기 위주에서 창의 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자 활동 중심 쓰기 위주로 변화되어 가고 있거니와 효과적 생각하기 교육을 위해 다양하고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제어: 교양국어, 교재, 대학 교양국어 교육, 교양필수, 국어, 대학국어, 한국어문, 글쓰기, 연습문제

1. 서론 : 교양국어 교육과 대학

흔히 '교양'이라 함은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과 잘 대화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 이수를 위한 기초뿐 아니라 전공교육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한 포괄적 교육까지 의미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중요히 다루는 것은 언어 능력이다. 그 가운데 국어 교육[1], 특히 읽기와 쓰기는 그것이 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사고를 자유케"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대학 교양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1) 언어 교과인 국어과는 모든 학문의 기초 도구 교과이면서 모든 학문의 내용을 담은 형식 교과이기에 그 목표는 국어 능력 습득 계발 향상과 인격 형성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대학 교육은 실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급변과도 관련이 있다. 광복 이후 우리는 전쟁과 분단, 혁명 등 실로 많은 변화 속에 살았다. 그러한 시대와 사회에 적응하고 그 요청에 답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육은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교양국어 교육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 대부분 대학생들은 읽기 위주의 교양국어 수업을 들었었다. 일률적으로 교양필수 과목 '국어', '대학국어', '한국어문' 등의 과목들을 들으며 문학작품 위주 많은 글이 실려 있는, 읽기 위주의 『대학국어』 교재로 수업하였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양필수였던 과목이 교양선택으로 바뀌며 축소되었었다. 교양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회의를 느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교양국어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필요성 논란에서 방법론 고민으로 바뀌었다. 그 한 화두가 '실용성'이었다. 변화된 사회에서 새로이 대두된 '실용성'은 대학 교양국어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게 하였다. 읽기 위주 교육에서 쓰기 위주 교육으로 바뀌었다. 교수 주도 하의 강의는 최소화되고 학생 주도, 학생의 참여 수업으로 양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본고는 이러한 대학 교양국어 변천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교양국어 교육 변천 과정 점검 작업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타진하는 작업이 되며 나아가 우리 교육의 지향점, 앞으로의 국어 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이다.[2] 오늘날 대학 교양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점검하고자 하는 본고는 대학 발생과 대학 교육 이전의 역사도 소략하

2) 각 학교의 교육방식이 차이가 있으므로 교과목이나 교재들을 다 조사하기는 어려웠다. 본고는 출간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필자가 근무하는 건국대학교의 교과목이나 교재들, 그리고 교양국어 교육 20여 년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논의한다.

게나마 고찰하고자 한다. 2장에서 대학 교양국어 교육 발생 전, 우리나라 글쓰기 관련 교육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다. 3장은 교재 발생 이후 변화과정에 관한 논의가 된다. 여기에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대학 교양국어 교육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교양국어 체계화 이전기 : 국어 교육 형성 과정

우리나라 글 교육의 기원을 살펴보는 이 장에서는 광복 직후까지 글 관련 교육의 면모를 읽기, 쓰기, 생각하기의 측면으로 짚어보고자 한다.[3] 그것은 읽기, 쓰기, 생각하기가 오늘날 대학 교양국어 교육에서 중시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교육사의 자세한 논의는 논지를 흐릴 우려가 있고 지면과 연구자의 능력 부족 등 한계를 가지므로 여기에서는 3장의 논의 전단계로서의 대략적 고찰에 그치겠다. 광복 이전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의 변화 과정은 조선시대까지, 일제 강점기, 광복 직후로 크게 나눠 살필 수 있다.

1) 조선시대까지의 국어 교육 - 공적 국어 교육 없음

우리 민족은 학구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당서』, 『신당서』에서 고구려 사람들은 습속에 서적을 좋아하여 큰 길에 커다란 집 경당을 짓고 청소년이 들어가 문무를 닦는다는 내용이 나온

3) 지식 생성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인 글을 쓴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기에 글쓰기 교육은 지식인 교육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구양수는 글 짓는 공부의 세 방면의 노력-많이 읽고(多讀), 많이 짓고(多作), 많이 생각함(多商量)-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대에도 유효한 개념이다. 많이 읽고 생각하는 것은 글을 쓰기 위한 내용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많이 읽고 써 보는 작업을 통하여 좋은 형식을 체득할 수 있게 된다.

다. 『고려도경』에서도 고려인들은 선비를 귀하게 여기고 글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면서 "여염집 거리에는 經館과 書社들이 두 셋씩 마주 바라보고 있고, 이곳에 백성의 자제들이 무리로 모여 스승에게 글을 배우며, 조금 자라게 되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벗을 택해 절간으로 가서 글을 익힌다."는 내용이 있다.

학문의 전제조건인 글 가르치는 일을 살펴보자.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국자는 한자였고 국어는 우리말이어서 말과 글이 괴리를 보이는 상황이었음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고려의 과거 시험이나 조선의 문과 시험은 모두 한문책 학습이 전제된 상태에서 주어진 의제가 바라는 뜻과 내용을 쓰는 제술업이었다.[4] 이 시험을 대비한 교육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함으로써 시문 짓기 위주의 제술이 주가 되었다. 제술 교육은 암송한 시문을 응용하여 시를 짓는 것이었다. 관학 위주인 고려 때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에서는 국자학·태학·4문학과 율·서·산의 잡학 등 과목을 통하여 경전과 시무책 익히기를 가르쳤고 조선시대에는 4학의 학당이나 향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귀족 대상이었다가 평민층으로 확산된 서민 교육기관인 서당에서부터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절요』 및 사서삼경

4) 유교경전 위주의 관리 등용 제도인 과거제가 우리나라에 시행된 것은 고려 광종 때부터이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제술업에서 시·부·송·책 등 주로 문학적 교양에 관하여 시험하였고, 명경업에서 서·역·시·춘추 등 유교경전을 시험과목으로 하였지만, 문학도 광범위한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던 만큼, 과거에의 응시가 상당한 유교 지식을 필요로 하였을 것임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이기백 편,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일지사, 1984, pp. 82-85.). 조선 후기로 오면서 단순 암기 위주의 쓰기가 되었다(한만봉·정덕희·김진욱, 「조선왕조 과거제도 인사정책 연구」, (사)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제15권 1호, 2005, pp. 165-172.). 과거제도에서 문장은 간엄하고 정교하게 사의에 통달해야 할 것, 유미한 문체를 사용하지 말 것, 해서체로 쓸 것 등의 형식적 규약이 있었다(정낙찬, 「조선전기 성균관 유생의 성적평가」,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11집, 2007, pp. 365-410.).

등을 통해 강독, 습자, 제술을 가르쳤는데 고등교육기관에서도 교재의 수준만 달리하며 이어졌다.[5] 이때 '읽기' 대상은 한문이었다는 것, 읽은 것을 반복암송 시키며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위주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쓰기' 역시 '짓기'로서 고인을 따라하거나 약간의 응용을 가르치는 정도에 그쳤으며 암송을 토대로 한 시문 짓기 교육에서 부수적으로 '생각하기'가 이루어진 정도였다. 결국 정치 입문 목적의 과거 준비과정에서 깊이 있는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력 함양 교육으로서의 쓰기 교육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5세기 한글 창제 이후 바로 한글 국어 교육,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6] 그러나 한글의 특성상 굳이 배우지 않아도 한글 글쓰기가 가능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국어 교육 면에서도 점진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 구한말, 일제 강점기의 국어 교육 - 공교육 시작과 좌절

갑오개혁으로 국문이 한글로 바뀐 이후 국어 교육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1880년대 말 현대식 교육기관의 발생도 한몫을 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당들이 차차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띠었고 전문가나 실무자 양성 기관인 신식 전문학교가

---

5) 정순우, 「조선시대 교육의 변천과정과 특징」, 국립민속박물관 편, 『선생님, 학생, 교과서』, 2000, pp. 161-162.

6) 우리 민족은 우리글, 우리 글자에 대한 욕구가 유난히 컸다. 중국에서 한자가 유입되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주체적으로 사용하였다. 글에 대한 욕구로 인해 우리 민족이 제도적으로 글을 창제한 유일민족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층 계급을 중심으로 한자가 지성을 가늠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지식인들은 한자 위주의 읽고 쓰기에 치중하였다. 신라와 고려뿐 아니라 한글 창제 이후에도 사서오경 등 한문책이 주된 글 교육 교재였던 것은 그 때문이다.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유지가에 의한 사립학교들도 전문학교로 발달하면서 고등교육기관들이 속속 만들어졌다.[7] 1895년 7월 19일 정부가 반포한 소학교령에서부터 작문, 독서 및 습자, 문법 교육이 강조되었다. 민족과 국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어 교육자들은 구어문, 언문일치를 강조하며 우리글 쓰기 교육을 서둘렀다. 이에 1906년에는 '국어'라는 교과목이 처음 만들어졌고 작문 교과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이 무렵 시작되었다.

당시, 읽기 측면에서 주체와 대상 면의 획기적 변화가 감지된다. 읽기의 주체는 양반에서 국민 모두로, 대상은 경전에서 실용적 지식으로 바뀌었다. 국문 위주로 기사를 싣는 『독립신문』의 발간과 근대 교육기관의 역할에 힘입어 국민 언어생활은 전면적인 변화를 겪고 독서가 대중화되었다.[8] 당시 독서 능력은 일반적 민중과 지식엘리트 구별 기준이 되면서 읽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소학교령 국어과 주요 내용에는 '독서'가 포함되어 문자 해득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 습득이 진작되었다. 그 때문에 당시에는 독본 교재가 비교적 많았다. 당시 작문교과서에서는 모범문을 중시하였는데 미문, 모범문 읽기 강조는 읽기를 통해 글 쓰는 재료를 얻고 고금 문체에 통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9]

---

7) 정해성·여지숙, 「일제강점기 한국 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 현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2007, pp. 405-410. 일제 강점기 4차에 걸친 조선교육령 시행기에 대학교는 한 곳, 관립, 공립, 사립으로 세워진 전문학교가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학교라는 제도적 교육의 탄생은 통일신라시기로, 교육이 전 민중으로 확대되는 시기는 조선 초 성종에서 중종 시기로, 자생적 근대교육의 등장은 아펜젤러 이후 혹은 해방 이후로 보는 설들이 있다.

8) 김종철, 「근대 초기의 독서론」,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0, 2003. 12, pp. 77-100. 이 글에서는 근대 사회로의 지향점인 1890년대부터 일제에 의해 좌절된 1910년까지를 독서 면에서 근대의 초기로 보고 있다.

9) 조희정,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 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123-124.

쓰기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소통방식의 변화와 근대적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은 열심히 썼다.[10] 당시 쓰기 교육은 서취와 개작, 글씨쓰기와 한문 원문 번역에 초점이 맞춰졌고 작문 교과서도 비교적 실용적으로 구성을 시도하였다.[11] 그런데 이때 쓰기는 수사 위주 미문 쓰기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 당시 "운문은 지용, 산문은 상허"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니 이는 정지용, 이태준 정도의 미문을 중시하는 쓰기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근대소설을 포함한 근대적 자국어 문학작품을 문장의 최고경지로 인정하는 문장관이 생긴 것이 바로 이때였다.[12] 하지만 쓰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글쓰기는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쓰기 교육이 불가능한 강점기 사회적 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권 밖 사회적 쓰기 교육이 간헐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 모든 글은 조선말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조선광문회의 '글 꼬느기 규칙', 최남선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 지침 등이 그것이다. 『소년』, 『청춘』지의 투고요령을 비롯하여 잡지의 심사평 등이 사회적 쓰기 교육의 예가 된다.

> 紀行文 가장 投稿數가 많다. 그러나 어찌 그리 內容이 千篇一律로 「汽笛一聲 京城驛을 떠나서」 式이 많은지 모르겟다. (…)
>
> 新詩 及 時調 크게 傑作은 없으나 比較的 成績이 좋앗다. 童謠, 特히 近日 新聞雜誌上에 流行하는 無味한 童謠가 많이 잇은 것은 유감이다. 그리고 漢文字를 많이 쓴 것 어떤 것은 日本文의 直譯같은 것이

10) 천정환, 「근대 초기의 대중문화와 청소년의 책읽기,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제9호, 2003, p. 296.

11) 당시 작문 교과서는 각 항목마다 연습문제를 실으면서 활동을 중시했다. 이각종도 작문에 방식과 규모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허재영, 『국어 쓰기 교육의 변천과 발전』, 소통, 2010, p. 41).

12) 조희정, 앞의 글, p. 110.

잇는 것은 좀 생각할 点이다. 表現의 技巧가 교묘한 것보다도 그 想의 크고 좋은 것을 擇하엿다. (…)

論文 明快한 論理와 簡明한 表現이 없다. 그저 어려운 文字를 많이 쓰고 對句를 많이 놓아 舊套를 벗어나지 못햇다. 새 時代의 平易 簡素한 論体를 본받지 못한 것이 크게 유감이다. (…)

書籍批評文 이 部는 가장 成績이 나쁘다. 도모지 5篇에 不過하고 (…)

記事文 도모지 問題밖이다. (…)[13](밑줄과 생략-인용자)

기행문, 시, 논문, 서적비평문, 기사문 등으로 나눠서 공모하였고 심사평을 통하여 내용과 형식상의 여러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논문에서 논리나 표현이 없다는 것, 서적비평문의 응모가 적다는 것이 주목을 끄는데 이는 당시 논리 교육이나 비판적 사고 교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당시 사고 교육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격동의 시대에 지식인들 중심으로 공론장, 연설과 토론장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문제 제기를 통한 생각하기가 다소간 이뤄졌다.

쓰기 교육 면, 이 시기 특징은 '글 교육의 시작과 좌절'로 표현 가능하다. 신식 국어 교육이 생기던 1800년대 후반부터 쓰기가 중시되었으나 일제 강점으로 우리글 쓰기가 어려워졌던 때문이다.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 의해 조선인 교육은 억압되고 국어 교육부터 차단되었다. 서당에서조차 일어 교육을 시키는 상황이었으며 일제의 탄압 속에 국어국문의 연구와 열기는 좌절되었다. 식민지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대[14]의 입학시험 학과목에 '국어와 한문'(국

13) 「제일회 중등학생작품 작품 지상대회(10月分 發表)」, 『동광』 제28호, 1931. 12. 1, pp. 64-68.

14) 1919년 조선민립대학 설치운동을 좌절시킨 일제는 민심 수습 차 경성제국대학 예과, 법문학부,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최고학부의 실상은 "반갑고 즐겁다는 것보다도 가이업고 애닯다는 말할 수 업는 悲哀"를 주는 것이었다. 조선인의 세금으로 설립된 이곳은 "敎授중에는 물론 朝鮮

문해석, 한문해석, 받아쓰기, 작문)이 있었고 대학 수업에서도 수신, 국어, 외국어 등 공통교양 수업이 있었으나 이때 '국어'는 '일본어'였으니 당시 교양으로서 우리글 교육은 전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광복 직후 미군정 하의 국어 교육 - 교양국어 체계화를 위한 준비기

신학문과 대학의 역사가 짧고 게다가 일제 강점으로 굴절된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대학 체제 정비를 서둘렀다. 해방 직후 주요 대학으로는 한말, 일제강점기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에서 국립대학이 된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세브란스, 보성, 이화, 연희, 불교중앙학림, 숙명 등의 전문학교들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등이 우리나라 현대적 의미의 대학의 시초이다.[15] 그러나 당시 대학 교육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으로 나누기만 했을 뿐 각 대학의 학과 개설이나 교육내용 등은 교수진 확보 여부로 좌우되었다. 50년대까지 대학에는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출석부도 없고 교수도 부족했다.[16] 교양국어 과

사람이 한 사람도 업고 학생 중에도 文科 理科를 통하야 都合 168명중에 朝鮮사람은 겨우 44명밧게 업"(「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개교식을 보고서」, 『개벽』 1924. 7, p. 76.)는 곳이었다.

15) 현재는 법으로 대학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28조)으로 하는 기관이다.

16) 때로는 강사가 1달 단위로 돌아가며 강의하는 편법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강인숙의 수필 「나의 동숭동 시절」, p. 74.).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되기 전까지의 이 시기에는 공통의 교육과정 없이 학교 자율적 또는 지역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교수요목에 의한 수업이 이루어졌다.

목 역시 정비되지 못했다. 초창기 교양국어는 다소 추상적 목표 하에 타율적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교재 만들기 전이므로 일반적 쓰기 교육의 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기 작문교육을 위한 이론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모색과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다독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외국문학 중심으로 전범 읽기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내용영역과 형식영역 면에서 글쓰기의 기준이 되던 중세 글쓰기 전범 텍스트들과 달리 일제 강점기 읽기 텍스트들은 전범으로서의 면모가 부족했다. 광복 직후에도 읽기의 대상이 근대로서의 미국과 미국 이념에 집중된 것이 많아 이 시기 읽기 교육은 글을 통한 국민의 훈육, 범례에 대한 수동적 모방 교육에 불과했다고 보인다.

강점기를 벗어난 해방 직후 쓰기 교육은 전기의 아무런 토대 없는 미개척분야로서 시작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이 시기 쓰기는 전범을 따라하는, 독서하고 뒤따라 모방하는 수동적인 방식이었다.[17] 모방 방식의 쓰기는 쓰기가 식자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표현능력임을 인식하였다는 점, 모방을 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글쓰기를 해야 함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틀과 내용을 베끼는 식의 글쓰기는 쓰기 교육 방안에 대한 고민 없는 교육이며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 강조된 생활문 쓰기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속 체험 이야기를 적는 생활문은 일기, 편지, 기행문, 감상문 등으로, 흔히 수필 장르에 들어가는 글이다. 생활문 중심의 쓰기는 문장 쓰기 연습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용 생성을 위한 독서 행위와 글쓰기를 분리시킬 수 있고 공적 글쓰기보다 개인적 차원 글쓰기로 쓰기를 국한시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 무렵 '생각하기' 교육은 더욱 어려웠다. 광복 이후는 이데올로기를

17) 허재영, 앞의 책, pp. 60-63.

비롯한 사회적 혼란기였기에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포기하고 사적 수준의 생각하기로 도피했고 공적 논의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광복 직후 혼란기에 제도적 쓰기 교육은 사적 글쓰기 고양 수준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이후 한국 교육에서 쓰기라는 것이 사적 의사소통 수단이나 개인 내면 표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 되었던 것은 이 시기 학교의 쓰기 교육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18]

3. 교양국어 체계화의 과정 - 대학 교양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대학 발생 이후 교양국어 교육 체계화의 과정을 교재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대학이 생기고 교재가 만들어지면서 교육 양상은 확연한 차이를 갖게 된다. 사전에서 대학은 "여러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정의된다. 지도자 자질 함양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기원을 중국 주나라 때의 국학기관,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아 등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에서 나아가 고려의 국자감, 조선시대의 성균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의 교육은 교양교육(공통교양, 자유교양)과 전공교육으로 이루어진다.[19] 교양교육의 기원은 초창기 대학의 '자유과'에서 찾을 수 있

18) 당시 글이 대중화되지 않았기에 제재 선정이 용이한 생활문 정도라야 글쓰기를 시킬 수 있었다. 글의 교육 대상을 어린 학생들로 잡았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글쓰기 교육과정상 사회적 성향의 상실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조희정, 앞의 글, pp. 134-159.).

19) 교양교육에는 근본적인 대학 이념을 추구하는 자유교양교육(liberal education)과 다양한 분야의 기초적, 도구적 교육인 공통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이 있어 세분화된 전공분야를 수학하는 전공교육(professional education)과 구분된다.

다. ‘자유과’는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 엘리트 양성’의 의미로 ‘섬기는 학문’과 대조되었다. ‘섬기는 학문’이 엘리트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인부들의 훈련 과정을 뜻한다면 ‘자유과’는 합리적 사고와 글쓰기, 말하기, 토론 등 사회 엘리트 계급에서 필요한 각종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었다.[20] ‘자유과’로서의 ‘교양국어’는 ‘교양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어’, 곧 합리적 사고와 글쓰기, 말하기 등 나라말을 통한 의사소통을 다루는 수업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국어 교육’의 정도로 보고자 한다.

대학의 교재는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의 범위와 방향을 알게 하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다. 교양국어의 경우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부교재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양국어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범위를 거의 담고 있는 주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교양국어 교재의 변천을 살피는 일이 교양국어 교육 변천과정을 보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교양국어의 주교재는 각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학교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나라 교재변천사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21] 하지만 주로 한국어 교육 교재 중심 변천사이고 우리 대학 교양국어 교재 변천에만 집중한 연구는 드물다. 우리 대학의 역사나 전문 교재 발생의 역사가 짧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 교양국어 교육 변천과

---

20) 자유과에서 제외되는 학문들은 농업, 비즈니스, 치과, 공학, 의학, 교육학(교사 관련)과 약학 등 특정 직업 교육이다(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A%B3%BC). 자유과의 범위는 사회마다 다양하였는데 그리스에서는 7자유과라 하여 문법과 수사학, 변증학(논리학), 산술, 기하학, 점성술, 음악 등 7과목을 가르쳤고 계몽주의 시대에 과학과 인문이 등장하며 범위가 확장되었다.

21) 고경민의 「한국어 교재 변천사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 18-26.)에서는 이지영, 백봉자, 조항록, 민현식 등의 변천사를 비교 정리하고 있어 크게 참고하였다.

정에 관한 선행 연구 허재영에 의하면, 광복 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미분화기, 1970~1990년대를 교양국어기, 2000년대 이후를 작문교과 독립기로 나누고 있다.[22] 본고는 이 견해에 동의하되 1950년대 중반 교재 발생 시기부터 1970년 작문 교재 개발 시기까지를 '대학 교양국어 전문교재 형성기'로, 1970년대 초 작문교재가 독립되고 교양국어와 작문이 공존하는 시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를 '대학 교양국어 발전기'로, 1990년대 이후를 '대학 교양국어 반성기, 방향전환기'로 특성을 정리하기로 한다.[23]

1) 대학 교양국어 전문교재 형성기 : 1950년대 중반~1970년

(1) '대학국어' 교재 개발기 : 1954~1960

광복의 혼란기에서 전쟁까지 겪으며 대학의 정비는 늦어졌다. 1955년에야 완전히 자주적이지는 못하나마 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1954년 9월에는 전국 국어국문학 교수단이 창립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 대학 교재도 만들어졌다.

서울대학교는 휴전 직후 제일 먼저 교양과목 교재출판위원회를 설치하고『대학 국문선』,『자연과학』,『철학』 등의 교양 교재를 출간하며 교육 체계화 작업에 나섰다. "대학국어의 교재는 56년경 프린트물의 형태로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60년부터 책 형태의 교재가 나왔다"[24]는 진술과 달리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1954년경 대학국어의 교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2) 허재영, 앞의 책, p. 134.

23)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학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소장되지 않은 교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24) 최문길,「전문대학 교양국어 교육 개선방안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어문연구』통권 제79호, 1993, pp. 376-377.

『大學 國文選』[25](이하 '가')을 보면, 목차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단어가 한자로 쓰여 있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전편'과 '현대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장르별 문학작품들을 담고 있다. 광복과 전쟁 직후 강하게 고취된 애국심으로 국문학 위주 읽을거리 교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공포 후 '대학국어'라는 제목이 처음 사용된 양재연 김민수 공저 『大學國語』[26](이하 '나')가 출간된다. '고전편', '이론편', '문장편'으로 나누며 (가)와 구성상 차이를 시도한다. '고전편'의 비중을 강화하여 장르별로 구별을 하고 각 장르마다 개관을 두어 이론을 담기 시작했다. '이론편'에서는 '국어'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품사' 등의 문법을 자세히 다루고 국어의 변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문장편'에서는 '각론'과 함께 '문장 작성의 요령'을 싣고 '문례'를 두어 논설문, 서사문, 설명문, 감상문, 기사문, 기행문, 서간문, 일기문, 식사문, 시 등의 용례를 현대문학 작품에서 찾아 싣고 있다. 부분 인용으로 싣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감상의 차원으로 문학작품을 실은 (가)와 달리 문장의 예로 사용하면서 글쓰기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는 듯 보인다. 처음으로 '색인'을 두어 책의 사용자를 감안하는 변화도 눈에 띈다.

『대학국어』[27](이하 '다')가 다른 교재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제목에서부터 쓸 수 있는 모든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극복했으며 '글'에 대한 인식을 책 앞쪽에 싣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첫째 장의 제목은 '글 짓는 법'이고 둘째 장은 '예문'이다. '글 짓는 법'보다 '예문'의 분량이 훨씬 많은데, 이는 이론보다 실례

25) 서울대학교는 이 교재를 1954, 1955, 1957, 1959 계속 편찬하였고 동대 국어국문학연구실에서도 1959년 출판했다.

26) 1955, 1958년 출판되었다. 1958, 1959, 1960년에 『(標準) 大學國語』라는 이름으로 대학국어교재편찬위원회도 출판하였다.

27) 국어교육분과위원회, 연희대학교, 1956.

위주 수업을 의도한 결과인 듯하다. '글 짓는 법'의 '문장 숙달법'에서는 이전의 삼다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노력', '말본과 수사학', '언어 경험', '사색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예문' 부분에서 '문예 평론', '논설', '식사', '설화', '수필', '시가', '기행', '일기', '편지', '소설'로 구별, 글을 싣고 있는 점은 현대와 같은 장르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거나 독창성을 시도한 결과로 보인다.

'교양' 자가 첨가된 『大學敎養國語』[28](이하 '라')를 보면, 내용을 '고전문학', '시와 소설', '평론과 수필' 등으로 구분한 뒤에 각 항목의 앞쪽에 해당 이론을 싣고 있는 정도이고 내용이나 한자 표기 면에서는 (가), (나)와 대동소이하다.

학교마다 의욕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은 교재를 편찬했다. (가), (나), (다), (라) 모두 적극적 교재개발의 결과이다. 그러나 읽기 자료를 중심으로 한 '대학국어' 수업에서는 문학작품 위주로 훑거나 당대 이데올로기나 이론을 강독하는 논설문 강독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장르별로 늘어만 놓는, 읽을거리로서의 내용 편중 교재는 대상 작품 수준이 보다 높다는 외에는 중고등학교 교재와의 차별성을 별로 보이지 못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갖는 것이 사실이었다. 학생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생각하기, 쓰기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⑵ 부교재, 보충교재로서의 작문교재 개발기 : 1961~1970

2차 교육과정 이후 대학의 교양과목에서도 전통·창의를 살린 자율권을 살려야 하며 교양과목의 수강 기간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29]는 등 교양과목 강화 분위기가 강화되었다. 그에 맞게 국어 6

28) 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교수실, 1956.
29) 「한국 교양과목 생긴 지 5년」, 『동아일보』, 1968. 10. 17.

학점 필수 이수 방침이 문교부로부터 마련되었다.[30]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이 수강기간을 늘렸다. 이 시기는 대학의 교양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높았던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교재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 시기 '대학국어' 교재 역시 여러 대학에서 『대학국문선』, 『대학국어』, 『국어』, 『교양국어』[31] 등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주목할 것은 교양국어의 실용적 교육인 작문의 기초 교재가 이 시기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용적 교양국어에 대한 초창기 움직임은 고려대학교가 출간한 『(大學)敎養國語』1-2(이하 '라-2')에서 볼 수 있다.

〈표 1〉 고려대학교, 『(大學)敎養國語』1-2, 1961.

序言 말과 글	國語·國字 問題	論說文
커뮤우니케이션	第二篇 바른 文章	附錄
言語와 文字	Syntax	助詞 一覽表
圖書館과 그 利用法	文章의 展開	活用語尾 一覽表
第一篇 國語生活	文章의 技巧	變則用言 一覽表
正確한 發音	文章의 推敲	틀리기 쉬운 漢字
標準語	第三篇 作文의 實際	틀리기 쉬운 漢字音
바른 綴字法	편짓글	俗談
띄어쓰기와 句讀點	日記文	慣用句
原稿用紙와 그 校正	紀行文	
敬語와 卑語	隨筆	
한글과 漢子	論文	

언어, 문자에 관한 기초 이론과 도서관 이용법 등을 '서언' 단원에 넣고 정확한 발음, 표준어, 철자법, 띄어쓰기와 구두점, 원고용

30) 『동아일보』, 1970. 1. 22. 이날 교양과정 법정 하한선을 늘리는 교육법 시행령 125조도 만들어졌다.

31) 제목이 한자로 된 것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초창기 이후는 한글로 표기하겠다.

지와 교정법, 경어와 비어, 한글과 한자 등을 1편 '국어생활' 단원에 넣는 등 실용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쓰기에서 퇴고에 이르는 문장론, 여러 가지 경우의 작문 실제 그리고 한자, 조사에 대한 사항까지 부록에 넣어 글쓰기의 기초 내용을 모두 싣고 있다. 이러한 교재의 출현은 1960년대 들어 대학국어가 대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글쓰기, '생활 주변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내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실제로 쓰게끔 유도하지 못하고 글 쓰려고 하는 이가 참고하면 좋은 내용을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국어』의 별책 형태는 실제 수업에 사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학국문선』(가)과 『대학국어』(다, 라-2)를 합친 통권 형태의 교재가 많이 만들어졌다.

〈표 2〉『대학국어』(건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국어분과위원 회, 1965.) / 생략과 강조는 인용자

論說	戱曲
學問의 方法(등 11편의 논설문)	흔들리는 培軸
詩歌	文章作法
(現代詩)	1. 主題
님의 沈默(등 13편의 시)	(중략)
(時調)	參考資料
蘭草(등 시조 3편과 이론)	1. 常用漢字
(古歌)	2. 誤讀하기 쉬운 漢字語
鳳仙花歌(등 3편)	3. 同音異義音
隨筆	4. 古事·成句
딸깍발이(등 7편의 수필)	(하략)
小說	
메밀꽃 필 무렵(등 6편의 소설)	

‘논설’, ‘시가’, ‘수필’, ‘소설’, ‘희곡’ 등 문학 장르 별로 작품을 나눠 싣고 ‘문장작법’, ‘참고자료’(교육용 한자나 한자음 등)까지 아우르고 있다. 논설문 중에는 자연 과학적, 사회 과학적 지식까지 다루는 내용이 들어 있고 고전 문학이나 논어 등 상당한 한자 실력이 전제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는 이후 오랫동안 교양국어 교재의 체제상 정전 구실을 하였다.

『대학국문선』(가)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는 너무 많은 읽기 자료의 제시이다. 한 학기 16주 수업을 통해 다 다루기 어려운 양인데 거기에 『대학국어』(다)에서 시작된 글짓기에 대한 관심까지 더하면 대학국어의 내용은 너무나 많아진다. 건국대학교의 『대학국어』의 경우는 『(대학)교양국어』1-2(라-2)까지 포함한 형태여서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국어 수업은 여전히 문학 강독 수업에만 치중되어 학생 중심의 생각하기, 쓰기 수업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학 교양국어 전문교재 발전기 : 197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가히 ‘대학국어’ 전성기라 할 만한 발전기이다. ‘대학국어’ 수업은 공고하였고 여러 학교에서 ‘작문’ 수업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1) 대학 교양국어 전성기, ‘대학국어’와 ‘작문’ 공존 : 1970년대 초~1980년대 중반

교육사에서 1970년대는 1, 2차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기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이념적, 추상적 성격을 반성하고 국어과 목표를 이해와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작문 지도에 개별적이고 집중

적인 지도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광복 이후 교육의 분과 중심 지식 추구 현상과 그로 인한 교양에 대한 관심 소홀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면 후반 들어서는 교양교육 수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32]

대학 교육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양국어에서는 실용성과 교양 함양을 지향하는 교양필수 교과로의 확립과 배당 시간이 더 주어질 것 등이 제기되었다.[33] 아울러 가르치는 수준이 문제시되었는데 교양국어 수준 논의는 국어 어휘 이해력 및 구사력, 특히 작문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한자를 더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교양국어 수업에서 수준 논의는 '잡다한 것, 아무거나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34] 그간의 교양국어를 되돌아보고 정체성을 짚게 하였고 '실용' 문제를 검토하게 하였다.[35]

이 시기 '대학국어'의 교재는 『교양국어』(외국어대학교, 신학대학), 『대학국어』(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3사관학교, 건국대학교,

---

32) 1978년의 『어문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대학국어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다(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78, pp. 188-234.).

33) 『경향신문』, 1978. 7. 24.

34) 1970년대의 교양국어 수업에 관하여 설문을 한 결과 당시 교양국어 수업은 교양 전반을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설거지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요. 숟가락과 젓가락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니 따로 분리해서 먼저 닦으라고 … 개수대에 한꺼번에 넣고 마구 닦아서 상스럽다고 하시던 말씀이 평생토록 설거지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중략) 수업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식이라 대학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나하고 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지요.(후략)" (http://cafe.daum.net/ku-woman, 밑줄-인용자)

35) 「대학 교양과정 기대에 어긋난다』, 『경향신문』 1980. 2. 25. '실용적 차원'에서 대학 교양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토론식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학교들의 반성이 신문에 실린 것도 이 무렵이다(「대학 교양교육 이상 있다』, 『동아일보』, 1982. 12. 13.). 이 며칠 전인 12월 10일 전국 종합대학의 교무처장들이 모여 교양과목의 질적인 향상 방안을 위해 논의하였다.

강원대학교), 『교양대학국어』(경기대학교) 등에서 차차 『대학국어』로 통일되는 현상을 보인다. 대부분 평론 및 수필을 교재 앞쪽에, 그 뒤에 시와 소설 등 문학작품들을 배치하면서 앞쪽에 해당 장르의 이론을 싣는 1950년대 교재 (나), (라)의 체제를 이어갔다.

이 시기부터 작문 수업이 실제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개 2학년 때 2시간 1학점으로 작문 수업이 이루어졌다. '국어작문', '국작한문' 등이 주당 한문 1시간, 작문 1시간으로 설강되면서[36] 수업을 위해 독자적 작문 교재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제일 처음 나온 교재는 『교양문장독본』과 연세대학교의 『대학작문』이다. 『대학작문』(연세대학교 출판부, 1972)은 한자표기를 완전히 배제한 채 '원고용지 사용법'을 제일 앞에 두고 문장에 관한 모든 이론은 '문장론' 안에 묶고 '각종 문장 작법'에서 수필에서 논문에 이르기까지 각 글의 작성법을 실었다. 부록으로 '도서관 자료 이용법', '한글 맞춤법의 기준', '구둣점'까지 실려 있다.[37] 이후 '대학작문' 교재 간행의 예는 다음과 같다.

『대학작문』 - 건국대학교(1977, 1986, 1987, 1988, 1989)/ 한양대학교(1980, 1988), 서울대학교(1981, 1986, 1988, 1989)/국어교재연구회(1981, 1985) / 전주우석대학(1985, 1988) /이우종 등(1985)
『문장작법』 - 경기대학(1980) /국민대학교(1982, 1989) /어문연구회(1982) /상명여자대학교(1983, 1987, 1988)
『작문의 이론과 실제』 - 대학작문교재편찬위원회(1982)

---

36) 과목명 '국어작문'이 교재명이 된 『대학국어작문』도 볼 수 있다(서울대학교, 1999/ 군산대학교, 1999.).

37) 비교를 위해 『교양문장독본』(대학교양국어 편찬위원회, 일신사, 1982. : 1971년판의 목차를 보기 어려워 1982년판으로 대신함)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라는 것', '음성언어의 결함', '문장이라는 것', '문장의 의의', '문장의 정확', '작가·독자·대상', '율문과 산문' 등을 다루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제2장 문장의 전개', '제3장 문장의 용어문제', '제4장 문장', '제5장 문장작성의 실제' 등.

『대학작문 및 논문작성법』- 경북대학교(1985)[38]
『대학국어 : 작문 한자 연습』-어문교재편찬회(1981) /목포대학(1981)

당시 교양국어 시간 수는 학교마다 달랐다. 대학생의 문장력에 대한 관심에서 국어 교육 안에 작문교육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컸지만 학교마다 운용 방식의 격차가 컸던 것이다. 여러 대학에서 대학 교양국어 부교재로 말과 글에 관한 책, 독서에 관한 책을 채택하였다.[39] 하지만 본교재의 내용 외에 추가되어 있는 쓰기 관련 부교재들은 수업 시간에 사용될 겨를이 거의 없었고 과제로나 이용되는 수준이었다. 많은 대학에서 이루어진 일주일 한 시간씩의 작문 수업은 실효성 있는 학생 주체의 글쓰기 수업이 되지 못했다.[40] 게다가 작문과 함께 묶여 있는 한자 교육에 대한 강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양국어 과목 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

38) 고려대학교는『대학국어』1-2 형태 교재들을 이어나가는 방식이었고(高麗大學校文理科大學,『(大學)敎養國語』1-2, 고려대학교출판부, 1975) 몇몇 대학들(이화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 등)이 고려대학교의 체제와 같거나 비슷했다.

39) 건국대학교의 경우 딸린 교재로『명저 해제』같은 책이 주어지기도 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명저 해제'로 검색해 본 결과 이병기에 의한『조선어문학명저해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세계명저해제』,『일본명저해제』등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한 책들이었고 대학교재로는 건국대학교교양교재편찬위원회가 1974년부터 1988년까지 간행한『명저해제』뿐이었다.

40) 인터넷에서 '국작한문'을 검색해 본 결과, '배운 기억은 없는데 성적증명서에 있다'(http://blog.joins.com/)는 글, 2008년까지 1학점짜리 '국작한문' 수업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글(http://cafe.naver.com/ewhauniv08/504) 들을 찾을 수 있었다.

(2) 대학 교양국어 수정기, '대학국어'에서 '한국어문'으로 : 1980년대 중후반~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쓰기 지도의 경험 축적과 이론의 도입에 힘입어 쓰기와 사고력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초·중등 및 대학 국어 과정에서 작문 교육이 내적 변화를 보였고 대학입시의 '국어' 과목도 크게 변화하였다. 『국어1』은 『국어』 상·하로 바뀌고 교과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문학 등의 기능별 구분으로 개편되며 학습 범위가 확대, 말하기와 듣기 비중이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국어2』의 『문학』에서는 이름이 생소한 작가들이 포함되면서 다양한 읽기가 시도되었다.[41] 이런 분위기는 대학 교양국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 말하기와 듣기, 다양한 읽기를 시도하지 않았던 대학 교양국어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위기를 맞았다. 1993년 전문대학 교양교육이 대대적으로 축소되었고[42] 다수 대학교에서 교양국어 과목을 폐지하거나, 다른 이름의 국어과 교양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는 등 교양국어 교육에 있어 위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교양필수로 2년간 교육되던 교양국어는 점차 1년간 교육으로, 다음으로는 1학기 교육으로, 교양선택으로 축소되었다.[43] 축소와 폐지

---

41) 『경향신문』, 1992. 3. 10.

42) 「직업선택과 무관한 교양 아예 제거」, 『동아일보』, 1993. 2. 18.

43) 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1986년 현재 96개 대학 중 24개교가 6학점, 5개교가 5학점, 34개교가 4학점, 28개교가 3학점, 4개교가 2학점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었다. 많은 학교가 선택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필수로 되어 있는 학교들도 수시로 과목의 폐지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당시 불안한 교양국어의 현실이었다(송기중, 「교양국어 교육의 목적과 범위」,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통권 제120호, 2003, pp. 408-409.). 교양국어 축소 폐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한자 교육을 포함시킨 때문이라 판단된다. 국어란 우리말 교육이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

분위기는 오래 계속되었다. 한자 포함, 많은 내용을 강의하려 두꺼워진 교재는 학생에게 과제 등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단위 형태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과제 피드백은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양국어 교육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갔고 근본적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어 교육의 본질은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의미 구성이나 전달 방식인 언어 사용법에 중점을 두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 시기 기존 교양국어의 내용 중심 교재의 문제점이 부각, 교재에 관한 다양한 고민이 표면화되었다.

과목명이 '대학국어'에서 '한국어', '한국어문'으로 바뀌고 교재명도 『한국어문』, 『한국어문학』 등으로 바뀌는 등 변화를 시도하였다.[44]

『한국어문』 - 건국대학교(1986, 1987, 1989, 1994, 2001)/배재대학교(1993)
『한국어문학의 이해』 - 홍익대학교(1989)/우리어문학회(1997)
『한국어문학』 - 성심여자대학교(1992)/가톨릭대학교(1995, 1996)/조선대학교(1997)
『(대학인을 위한) 한국어문의 이해』 - 국어교재편찬위원회, 良書院, 1994, 1996, 1997)
『지성인을 위한 한국어문』 - 국어교재편찬위원회, 학지사, 1997.

양국어에서는 한자 교육을 고집했다. 필자 역시 교양국어 시간에 논어 강의를 하거나 독음, 사자성어를 가르치며 한자를 가르친 경우가 많았다. 한자 교육이 포함된 교양국어 자체가 현실성 없고 어려운 과목, 기피 대상 과목으로 인식되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

44) 우리말을 '한국어'로 객관적으로 지칭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외국인 대상 교재가 본격화되었다. 임호빈・홍경표・장숙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1997.; 유목상, 『한국어문법 이론』, 일조각, 1990.; 이한우, 『(실용)한국어문법』, 진영사, 1990.

'한국어' 대신 '우리말', '우리글'로 표현한 제목의 교재들도 출간되기 시작하였고[45] 작문 수업도 병행되었다. 이 시기 작문 교재 『국어작문』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서울대 『국어작문』, 서울대학교대학국어작문편찬위원회, 1994 / 생략과 강조는 인용자

첫째 단원. 대학생활과 학문	예문 12. 수필을 통해 본 글의 실상 등 평론 논문 다수
해설 1. 大學生活의 構想 / 李賢熙 등 논설문 3편	연습문제
예문 1. 대학과 대학생활	넷째 단원. 논문작성의 실제 작업
(…)	해설 10. 논문의 용어와 문장 / 조남현
연습문제	해설 11. 논문의 구성과 형식 / 서대석
둘째 단원. 연구 자료의 이해와 활용	해설 12. 인용 주석 및 참고문헌 / 이병근
(…)	연습문제
셋째 단원. 작문의 절차와 방법	
해설 7. 문장과 단락 / 任洪彬	
해설 8. 작문의 절차 / 崔明玉	
해설 9. 설명과 논증의 방법/ 오세영	

네 단원으로 나눠 둘째 단원에서는 자료 이용법, 셋째 단원에서는 실제 글쓰기 방법을 다루고 해설은 간단히 하는 반면, 예문을 많이 실었다. 특히 넷째 단원에서는 여러 논문들을 예로 싣고 '예문 22. 학술논문집 투고 규정', '예문 22-4 논문집 투고지침 및 논문작성 방법' 등을 다루면서 실제 논문을 싣기 위한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약 12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다.

---

45) 강기진 외, 『우리 말과 글의 이해』, 경기대학교 학술진흥원, 1991,;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국어편찬위원회, 『우리 말·글·생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국어교재편찬위원회, 『우리 말과 글』, 문음사, 1996.

3) 대학 교양국어 방향전환기, ‘글쓰기’ 교과목의 본격화 :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양과목 실용화가 급격히 대두된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교양국어에 있어서는 가히 ‘방향 전환기’였다. 교수의 강독, 읽기 위주의 ‘대학국어’에서 학생 활동 중심의 ‘글쓰기’로 바뀌었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일부 전문대학에서 시작된 실용 글쓰기 교육 움직임은 점차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글쓰기 과목이 단일 한 과목 기능을 초과하여 모든 학과, 모든 학문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임을 인식하면서 보다 활성화, 전문화되었다.

이 시기 글쓰기 교육의 활성화, 전문화의 움직임은 세 차원으로 나타났다. 첫째, IT 시대에 맞춘 각 학교의 교양과목 관련 홈페이지 개설에서 보였다. 서울대학교는 2003년부터 글쓰기 교육을 본격적으로 강화하였다. 기초교육원을 부설하고 홈페이지(http://liberaledu.snu.ac.kr/)를 마련하였다. 연세대학교는 독립학부로서 학부대학(http://www4.yonsei.ac.kr/fresh/)을 두었고 숙명여대는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육원보다 1년 먼저 의사소통센터(http://sctl.sookmyung.ac.kr/)를 설치하였다. 건국대학교는 교양학과(http://sgedu.konkuk.ac.kr/main.html)를 두었다. 둘째, 글쓰기 과목이 대거 신설되고 세분화되었다. 각 대학은 글쓰기 교과를 교양필수로 설치하였고 말하기, 토론하기, 비판적 사고 등으로 점차 영역이 확대되었고 ‘인문과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자연과학 글쓰기’ 등 세분화되었다.[46]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부기초’에 ‘글쓰기’ 과목

46) 서울대학교는 ‘대학국어’를 1학년 때 공통 필수로 듣게 하고 글쓰기 관련 교양과목을 ‘과학과 기술 글쓰기’(2003년부터), ‘사회과학 글쓰기’, ‘인문학글쓰기’ 등으로 나누어 설강하고 택1 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국어’는 존폐 위기에 있다 할 것이다(“서울대에 따르면 이번 학기 인문·사회·자연 등 7개 단과 대학에 개설된 대학국어 강좌 70여 개 중 인문·사회대에 개설된 약 20개 강좌가 신청률 저

을 설강하고 수강은 학부 선택이지만 학부마다 각 전공 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2006학년도부터 '과학 글쓰기' 과목을 개설하였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2004학년도에 '사고와 표현'이라는 글쓰기 과목을 공통 교양과목으로 선정하여 '사고와 표현Ⅰ'이수 후 '사고와 표현Ⅱ'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1학기에는 전교 공통의 기초 글쓰기, 2학기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영역별로 나누어 전문화된 글쓰기 과목을 가르침으로써 단계별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역시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글쓰기 영역 가운데 하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는 교양필수인 '상허교양'으로 '사고와 글쓰기'를, 일반 선택인 '글로컬교양'으로 '실용글쓰기 심화'를 설강하였다. 영남대학교는 '맞춤형 글쓰기와 읽기(명저읽기와 글쓰기)'를 설강하여 읽기, 쓰기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47] 셋째, 교재의 활성화, 전문화 움직임이다. 기존 교재의 강독 부분이 과감히 삭제되거나 줄고 학생 중심의 읽기, 쓰기 중심의 교재로 바뀌었다. '사고와 표현', '실용 글쓰기', '대학 글쓰기'라는 교재명이 처음 나타난 1995년 이후 대학 교양국어 교재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대학 교양국어 무용론에 대한 반성의 차원과 실용성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 끊임없는 모색 대상으로서의 교양국어 교육

조로 폐강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대 '대학국어' 20개 강좌 폐강 위기』, 『연합뉴스』 2004. 3. 1.). 이는 '대학국어'와 글쓰기 과목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박현희,「서울대학교 글쓰기 교과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사고와 표현』, 2009, p. 174).

47) 자세한 논의는 박준범, 김정화의「글쓰기의 관점에서 본 '읽기·쓰기 통합 교육'의 실제와 향방 : 영남대 사례를 중심으로」(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0집, 2010. 12, pp. 215-250.)을 참고할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교양국어로서의 글쓰기 교육의 역사를 짚어 보았다.[48] 조선시대까지 개인의 역량 문제로 치부되던 글쓰기 교육이 근대 이후 점차 공교육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글쓰기 교육을 공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려던 무렵 일제 강점을 겪게 되어 다시 개인 수준으로 물러났다. 광복 이후 바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지만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끝에 읽기 위주의 대학 교양국어 교재가 만들어졌다. 대학에서 교양교육, 특히 교양국어 교육은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반성도 있었고 심오한 회의도 거쳐 왔다. 『대학국어』를 교재로 하는 '대학국어' 과목은 한때 교양필수였고 점차 교양선택으로 좁아졌다가 거의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글쓰기' 과목이 생겼다. 표에서 알 수 있듯 대학 교재는 내용 중심, 읽기 위주의 '대학국어' 교육에서 '한국어문', '작문' 병행 교육으로, 점차 '글쓰기' 위주 교육으로 옮겨갔다. 강독 위주에서 학생의 쓰기 위주의 교과목으로, 교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954년 대학 교양교재가, 1972년 작문 교재까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부터 체계화의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미루어 교양국어에서 교재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대학의 교재는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의 범위와 방향을 알게 하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 변화하는

48) 대학의 교양국어 변천과정을 특정 교재의 변천과정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좀더 일목요연할 수 있다. 말과 글 교육 교재 『우리말. 글. 생각』(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국어편찬위원회)은 1984년 판의 경우, '韓國文學의 思想的 背景', '韓國의 言語와 民族文化', '韓國文學과 오늘의 生活'의 목차로 되어 있고 1989년 판은 '생각', '말', '글(古典)', '글(現代)'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4년 판은 '현대사회와 글쓰기', '글쓰기와 문장', '문장과 문단', '진술방식', '글쓰기의 절차와 실제'와 부록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80년대 중반까지 한자로 표기되던 것이 점차 한글 표기로 바뀌고 추상적인 내용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바뀌는 이러한 교재 수정 과정은 우리나라 교양국어 교육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것이 당연한 만큼 그 방향성 고려가 중요하다. 우리 대학의 교재는 과거 주입식에서 창의 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자 활동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거니와 계속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천편일률적인 교재보다 조금이라도 더욱 현실적이고 더욱 도움이 될 만한 교재 구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교양교육의 기반이 되는 글쓰기 교육이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교양국어 교육으로서 글쓰기 교육이 4년제 대학교뿐 아니라 모든 전문대학으로까지 확대되어 대학생의 인격 완성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개벽』, 『동광』 등 과거 잡지
『동아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의 신문뉴스
광복 이후 발행된 대학 교양국어 교재들

2. 논문

고경민, 「한국어 교재 변천사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 18-26.
김영우, 「개화기의 고등교육제도」, 『대학교육』 44, 1990, 1990, pp. 64-76.
김영욱, 「대학 국어 교육의 이상과 현실」,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통권 제120권, 2003, pp. 435-461.
김종철, 「근대 초기의 독서론」,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0, 2003. 12, pp. 77-100.
김현룡, 「대학 「교양국어」의 개선방향」,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1989, pp. 158-160.
박준범 · 김정화, 「글쓰기의 관점에서 본 '읽기 · 쓰기 통합 교육'의 실제와 향방」,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0집, 2010.12, pp. 215 -250.

박현희,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과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사고와 표현』, 2009, pp. 165-190.
송기중, 「교양국어 교육의 목적과 범위」,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통권 제120호, 2003, pp. 407-433.
이광모, 「대학교양교육으로서 '토론'과 '글쓰기'의 의미와 방향」,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통권 제67호, 2005, pp. 162-171.
이상태, 「대학교양국어 교육 시행의 현황」,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117권, 1996, pp. 461-484.
이주일, 「대학에서의 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통권 제20호, 1978, pp. 231-234.
이현일, 「일제하 공립의학전문학교의 설립과 운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2호, 2012, pp. 321-348.
정순우, 「조선시대 교육의 변천과정과 특징」, 국립민속박물관 편, 『선생님, 학생, 교과서』, 2000, pp. 161-162.
정낙찬, 「조선전기 성균관 유생의 성적평가」,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11집, 2007, pp. 365-410.
정해성 · 여지숙, 「일제강점기 한국 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 현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2007, pp. 405-410.
조희정,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 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67-159.
천정환, 「근대 초기의 대중문화와 청소년의 책읽기,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제9호, 2003, pp. 295-329.
최문길, 「전문대학 교양국어 교육 개선방안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통권 제79호, 1993, pp. 375-387.
한만봉 · 정덕희 · 김진욱, 「조선왕조 과거제도 인사정책 연구」, (사)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제15권 1호, 2005, pp. 165-172.

3. 단행본

이기백 편,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일지사, 1984.
허재영, 『국어 쓰기 교육의 변천과 발전』, 소통, 2010.

[Abstract]

A Study on Transition Processrocess of Cultual Korean as General Education

- Before the Period of University Education until the Institution of Liberal Korea Education -

Jo, Mi-Sook

This article aids to study the education transition process of the culture Korean in University by explore the transformation the teaching of the University of the Cultual Korean's textbook. There was time to have had lessons most liberal arts students are uniformly required courses 'Korean', 'the academic Korean', 'Korean langage-literature' such as intensive reading lessons while listening to the textbook-『the academic Korean』. Today, 'the academic Korean', or 'Korean language-literature' lessons have disappeared or weakened. And instead of the common 'the Writing' lesson was made. The Writing's textbook has a tendency to focus on student activities such as exercise. I divided into two period the development of Korean teaching by the Korea's liberation-before and after The Hangul textbook is to appear the Cultual Korean. After creating the professional textbook in the 1950s, divided into the changing process in detail-'the period before the academic Korean in University' until early 1950s, 'the period making professional textbooks of the academic Korean in University'-from the mid-1970 supplementary materials generated until 1970's independent sub textbook was made, 'the professional textbooks's development period in the academic Korean in University'- from the early 1970s that made writing's textbook independently until the early 1990s, 'the reflection period- when the direction changes rapidly the academic Korean in University teaching'-after 1990s.

Key words: the culture Korean, textbook, the academic Korean education, compulsory course, Korean, the academic Korean, Korean language-literature, writing, exercise

조미숙
건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전화번호: 043-840-3945
전자우편: msjo@kku.ac.kr

이 논문은 2014년 6월 28일 투고하여
2014년 8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8월 18일 게재 확정함.